

한국문화교류 소식

48호 2023년 6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동물사랑과 생명존중



고용규

ICKC 운영위원, (주)동우들 대표이사

“사람은 독거(獨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하
고라도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좋다. 하물며 형제자매
간에 있어서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
테스의 말이다. 이것은 혈육과 함께 사는 것, 즉 가
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사람에게 있
어서 가족은 소크라테스의 어록보다 훨씬 더 큰 의
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가족은 생존뿐만 아니라 자

손의 확산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자 인식처이기도 하다. 대가족, 핵가족 등 가족 형
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유로 가족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가
족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언론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
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 대략 3명 중 1명이 반
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옛날과는 달
리, 현재 반려동물은 어엿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반려동물은 자신의 삶 속에서 동거
동락(同居同樂)하는 일생의 동반자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펫팸족’(Pet+Family)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펫팸족’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
람들을 의미한다. 심지어 출산을 하지 않고 반려동
물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딩펫족’(Double Income No

Kids With Pet), 그리고 반려동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아끼는 펫미족(Pet=ME) 등도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도 그러하다.

“2019년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 사람의 15%가 그들의 반려자보다 반려동물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혼전 합의서’까지 제시한다. 곧 결혼하는 부부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둘 중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합의를 위한 것이다.”(중앙선데이, 2023년 2월 27일자)

‘펫팸족’의 등장은 그간 잊혀져있던 동물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미국의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사랑없는 삶은 존재이유를 잃어버린 삶”이라고 했다. 이 말에 따르면, 사랑은 존재의 유무를 결정한다. 생명체에게 존재유무는 ‘생(生)과 사(死)’의 문제이다. 고로 사랑은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족 개개인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중시하는 것이다. 즉 가족의 사랑은 곧 생명존중(生命尊重)의 절절한 발로이

다. 동물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동물사랑의 기본 전제이다.

천지만물(天地萬物)은 천지동근(天地同根)이며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서로 다르게 보일지라도, 근원적으로 내가 상대방이고 상대방이 ‘나’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존중은 두말나위 없이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섭리(攝理)이다.

최근 ‘펫로스 증후군’(pet-loss syndrome)이 사회적으로 조명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비록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고 진심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훈훈해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을 한 번 더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동물사랑의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닐까?



[사진출처] 신세계매거진

가슴으로 하는 한국말, 마음으로 품는 밝은 꿈



손 창 현
나의꿈국제재단 이사장

미국 휴스턴에 본부를 두고 2012년에 출범한 '나의꿈국제재단'(MDIF; My Dream Int'l Foundation)은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청소년꿈발표축제' 개최 및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양 육대주의 60여개 국가에서 1,000가지의 감동과 1,000가지의 비전을 재외동포 청소년들과 함께 피워 온 세월이 어느새 10년을 넘어 또 다른 10년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나라와 같은 지역을 다시 방문해도 늘 다양한 꿈이 펼쳐지며, 그 꿈들은 청소년들이 당면한 환경과 삶을 대변합니다. 한일 관계에 외교 문제가 커지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자신이 두 나라 사이를 좋게하는 외교관이 되겠다는 순수한 이야기가

자주 소개되곤 합니다. 미국에 건너와 40년 이상 하루의 대부분을 영어와 함께 살아온 필자이지만 아직도 대화 중에 가끔 어색한 영어 표현을 쓰게 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아예 아름다운 우리 한국말투 표현이 가슴 속 시원할 때도 있고, 그 한국말의 참맛을 대화에 곁들이기도 하는 경우를 보며 필자의 저 깊숙한 한국의 뿌리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각 국가마다 다른 언어 생활권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워 대회에 참가하여 유창하게(물론 서툴 때가 더 많습니다.)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대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해 파리에서 열린 꿈발표 축제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두 문화의 부모를 가진 12살 소녀가 자신의 꿈을 발표하였는데 이 소녀는 준비해 온 한국어 발표 원고를 읽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떠듬떠듬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발표하겠다는 의지가 파란 눈과 까만 머리의 이 소녀의 얼굴에서 보였습니다. 규정시간 4분이 많이 초과하자 청중들은 웅성대기 시작하였고, 대회 준비위원들이 발표를 멈추게 해야 하나 문의가 왔을 때... 그 1초가 1시간처럼 흐를 때... 이사장으로서, '끝까지 발표하도록 해 줍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과 함께 반 울상이 돼가며 10여분에 걸쳐 발표를 마친 이 소녀를 향해 저는 마음속으로 어마어마

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물론 규정상 입상은 못하였지만, 만약 규칙을 따져가며 발표를 중간에서 멈추게 했다면 이 소녀는 아마 한국어는 물론 한인 사회를 멀리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바로 우리 재외동포 후세들에게 주어야 할 산교육이라고 역설합니다. 그 다음해에 이 소녀가 재도전하며 한층 발전된 한국어 실력을 보여 주었을 때 ‘이거다!’ 하며 그 소녀의 아름다운 재도전은 물론이고 제 스스로 만족감에 마음속에서 주먹 펌프질을 수십 번도 더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가치와 역할이 날로 높아지는 세계화 시대, 재외동포 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민 세대가 거듭되고 다문화가정도

증가하면서 이들이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교육과 함께 이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발표할 기회를 많이 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서투르게 사용하여도 그 노력과 용기에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 각자의 생활권에 맞게 한국어 사용을 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꿈국제재단’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국의 말과 정서가 담긴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꿈에 귀를 기울이며, 중점 사업인 ‘청소년꿈발표축제’와 ‘장학사업’, 나아가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고 확대하는 교육 사업으로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재외동포 후세들의 등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



▲ 과테말라 청소년 꿈발표 축제



▲ 제2회 세계 재외동포청소년 꿈발표 축제 (2022년)



▲ 영국 청소년 꿈발표 축제



▲ 나의꿈국제재단 브라질 지부 장학금 전달식

남녀 희비 갈린 한국 태권도 대표팀의 세계선수권대회 ... 남자부 4연속 종합우승 달성, 여자부 사상 첫 '노 메달'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한국 대표팀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2023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선수권대회 마지막 날인 6월 4일(현지시각) 남자 87kg+급에 출전한 배윤민(25·한국가스공사)과 여자 52kg에 출전한 인수완(19·한국체육대)이 각각 16강, 32강에서 탈락하면서 메달을 추가하지 못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박태준(19·경희대·54kg급), 배준서(23·강화군청·58kg급), 강상현(21·한국체육대·87kg급)이 금메달, 진호준(21·수원시청·68kg급)이 은메달을 따내면서 금메달(120점) 3개, 은메달(50점) 1개로 남자부 종합우승(점수 410점)을 차지했다. 2017년 무주 대회 이후 4연패다. 세계선수권 데뷔전 금메달을 거머쥔 한국의 신성 박태준은 대회 최우수남자선수(MVP)에 뽑혔다.

다만 여자부는 8개 체급 전부 시상대에 오르지 못

했다. 한국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부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건 198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자부 대회가 시작된 이래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선수권에서 여자부 종합우승을 놓친 것 역시 2009년 코펜하겐 대회(우승 중국), 지난해 과달라하라 대회(우승 멕시코) 이후 세 번째다. 과달라하라 대회는 한국 여자 태권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노 골드'를 기록한 대회이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튀르키예가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여자부 우승(260점)을 차지했다. 여자 49kg급 챔피언인 메르빈 딘첼(24·튀르키예)은 최우수여자선수에 선정됐다.

한국 팀이 웃고 우는 사이 바쿠에서는 세계적인 세대 교체 바람이 불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144개 국가 중 24곳이 메달을 획득했다. 64명의 메달리스트 가운데 처음 세계선수권 메달을 목에 건 선수는 35명(54%)으로 과반에 이른다. 처음 챔피언 자리에 오른 선수도 남녀 최우수선수 박태준과 딘첼을 비롯해 9명이다. 이들 중 다수는 24살 이하 선수들이다. 아울러 WT는 대회 개막 후 6일 차인 지난 3일까지 기준 유튜브 스트리밍 생중계를 160만 명 이상 시청하는 등 흥행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13명의 난민 선수가 참가했다. 특히 WT와 태권도박애재단(THF)이 2016년부터 태권도 교육을 지원해온 요르단의 아즈락 난민 캠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예호아 알고타니(19)가 세계선수권대회

에 출전하기도 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2017년 무주 대회, 2019년 맨체스터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세계태권도선수권 현장을 찾았다.

조정원 WT 총재는 이날 한국 취재진과 만나 위 성과를 두루 짚으면서 “이번 대회를 평가하자면 10점 만점에 8.5점”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조 총재는 “WT가 난민 지원 등 활동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앞장서서 리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IOC도 각별히 고맙게 여긴다”라며 “상대적으로 경험 쌓기도 어렵고 정보도 어두운 난민 선수들이 올림픽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국에 초청해 집중 훈련을 제공하거나 전문 코치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생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WT 선수위원회에 당선된 이대훈(31), 셰이크 시세(30·코트디부아르), 우징위(36·중국), 케서린 알바

라도(35·코스타리카) 네 명의 위원은 이날 폐막식에서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특히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코트디부아르 역사상 처음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던 시세는 이날 남자 87kg+급에서 우승해 선수위원 임명장과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같은 날 받았다. 시세는 이 대회전까지 4번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지만 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다.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은 비록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감투상을 받았고, 캐나다는 장려상을 받았다. 한국의 안홍엽 코치는 최고의 남자 지도자상을, 튀르키예의 알리 샤희 코치는 최고의 여자 지도자상을 받았다. 최고의 남자 심판상은 아이만 아다르베(요르단) 심판에게, 최고의 여자 심판상은 브루나이에서 활동 중인 김병희 심판에게 돌아갔다. 다음 대회는 오는 2025년 중국 우시에서 개최된다. 



▲ 이대훈 WT선수위원이 조정원 총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 베스트남자선수상 박태준(오른쪽)과 조정원총재



▲ 남자부위를 차지한 문병영 감독과(왼쪽에서 네 번째) 조정원총재



▲ WT 선수위원들과 조정원총재

조정원 WT 총재 세계선수권대회 일문일답



▲ 세계선수권대회 기자브리핑 중인 조정원 WT 총재

문: 대회 총평을 한다면?

답: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새롭게 개정된 룰을 가지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잘 진행된 거 같다. 굳이 1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은 8.5점 정도. 각 국가협회 회장들도 메달을 딴 나라는 말할 수 없이 좋아서 즐겁게 좋은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3판2선승제 등 새로운 경기 방식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파리 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다른 때보다 크다.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금메달이 두 개 나와서 파리올림픽에서도 태권도 붐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국제 대회 참석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인가?

답: 지금 올림픽 종목만 하더라도 하계 올림픽 종목이 28개(2024년 기준 32개)인데 세계선수권 대회가 일 년에 몇 번씩 있다. 그걸 IOC 위원장이 다 갈 수도 없다.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특히 난민 지원 등 활동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신을 앞장서서 이렇게 리드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IOC도 각별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 2025년 세계선수권 대회가 바흐 위원장 임기 중에 있는 마지막 대회가 될 거다. 그때도 꼭 초청을 해서 다시 한 번 올 수 있다면 태권도에도 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2017년 무주에 바흐 위원장이 왔을 때도 세계태권도연맹이 한 태권도박애재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올림픽난민재단을 만든다고 얘기했다. 제가 창립 이사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참여를 했다.

문: 총점에서 1.5점 깎은 이유는?

답: 심판이 있는 경기가 다 그렇지만은 실수하는 것들이 좀 많았다. 심판 있는 경기를 주관하는 국제스포츠 기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답은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들이 많이 나왔다. 해당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었다. 또 주최국에서 메달이 좀 나와야 전반적인 분위기가 올라가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선수권 주최하면서 메달 하나도 못 딴 첫 나라가 될 것 같다. 대신 이번엔 진짜 무명 스타들이 두각을 드러낸 대회가 됐다.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름 있는 선수들은 그냥 막 초반에 떨어지고 했는데 젊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주면서 지난 도쿄올림픽부터 변화의 바람이 이어지는 같다.

문: 한국은 여자 선수단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노 메달'을 기록했다.

답: 중국도 지난번 그랜드슬램 우시 대회에서 여자 금메달 4개를 다 휩쓸었는데 이번에는 '노골드'다. 참 경기라는 게 알 수가 없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경기력이 달라진다. 이란도 이번 대회는 어려워했고, 예측이 진짜 힘들어졌다. 캐나다, 카자흐스탄, 그리스 등 몇 나라는 16명씩 모든 체급 선수들을 내보냈는데 메달을 하나도 못 땀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 같은 곳은 시에라이온이나 브룬디 같은 곳 회장 만나보면 여기 오는 데 3일씩 걸렸다고 한다. 회장이 개인 사비로 경비 지원한 나라도 있고, 총회는 참석하는 데 선수는 못 데려온 나라도 있다. 앞으로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도울지 연구를 해야 한다. 하다가 끊긴 커먼웰스 태권도 챔피언십도 다시 하고 유라시아 태권도 챔피언십 등 그 지역 대회를 활성화 시켜주려고 한다. 대륙연맹 회장들 또 국가협회 회장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다. 회원국 수가 213+1이라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그 역할을 이제 논의할 거다.

문: 난민 지원 사업은 어떻게 이어갈 계획인가.

답: IOC도 이번에 특히 난민 선수들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 처음 아즈락 난민 캠프에서 세계선수권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 IOC 장학금 받고 있는 선수들이 7명이 왔는데 물론 성적은 다 좋지가 않다. 경기 경험이 아무래도 적고 정보도 더 어두워서 성적을 못 올렸다. 결국은 각 대륙연맹 선발전을 통해서만 (올림픽에) 갈 수가 있으니까 올림픽 앞두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통과할 수 있을까 연구 중이다. 한국에 초청해서 집중 훈련도 좀 시키고 또 유능한 코치를 그쪽에 보내서 몇 달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특집: 현장의 눈 1

반려동물과 인간의 상생에 관한 토의의 장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창립 12주년 기념 포럼 개최

ICKC는 지난 3월 30일(목),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 총회 및 “반려동물과 인간의 역사”라는 주제로 창립 12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본 총회와 포럼의 취지 및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전해 드립니다. 총회, 세미나, 문화탐방 등 ICKC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_ICKC 사무국

사단법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이하 ICKC)는 2023년 3월 30일(목)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역사’라는 주제로 정기총회 및 창립 12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포스코DX(정덕균 대표이사 사장)에서 후원한 본 행사에는 표재순 전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이석복 (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예비역 소장),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병욱 서원대 명예교수,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등 6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개회사 중인 위호인 ICKC 이사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약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정기 총회와 2부 기념 포럼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 총회에서는 위호인 ICKC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이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과 ICKC의 총재를 겸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의 환영사를 대독했다. 조정원 총재는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가에 태권도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ICKC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ICKC의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연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환영사에 이어 2022년 회계결산 및 2023년 사업계획



▲ 조정원 총재의 환영사를 대독하고 있는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

보고, 신규임원 선출 등 정기총회 주요 안건이 참석 회원 동의로 의결되었다.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호인 이사장을 필두로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주)P&H 회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장정용 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 6인이 이사로 선출되었고 전 영섭 변호사, 박원출 전 조폐공사사장 2인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이사장 및 이사 임기는 4년(감사 2년)으로 2027년 3월까지 ICKC 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호인 이사장 및 임원들은 한국문화의 융성과 국제교류라는 ICKC의 창립이념이 되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여러 의미 있는 사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수락 소감을 밝혔다.



▲ 'WT 케어스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클라우디아 카르데나스 세계태권도연맹 위원

다음으로 세계태권도연맹(WT) 주요 사업 보고가 있었다.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을 대신해 세계태권도연맹의 클라우디아 카르데나스(Claudia Cardenas) 위원이 단상에 올라 'WT 케어스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했다. 에콰도르 출신의 클라우디아 위원은 저개발국의 가난한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태권도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태권도를 통한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케어스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리아 난민캠프,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케어스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를 상세히 들려주어 청중들의 큰 호응과 공감을 이끌었다.

이어서 특별 순서로 이번 행사에 참석한 성바오로수도회의

심재영 수사와 한국문인협회 이사인 장충열 시인의 즉흥 축하무대가 열렸다. 심재영 수사와 장충열 시인은 두 분 다 시낭송에 일가견이 있는 문인들이 그 명성에 걸맞게 각각 문정희 시인의 시와 장충열 시인의 자작시를 절실한 감정을 담아 멋진 목소리로 낭송하여 참석자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이끌었다. 여러 차례 앵콜 요청이 있을 정도의 훌륭한 시낭송으로 오랜만에 열린 대면 정기총회의 분위기가 한껏 고양되었고 참석자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즐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 시낭송 공연으로 행사를 축하하고 있는 심재영 수사(左)와 장충열 시인(右)

2부 기념 포럼에서는 '반려동물의 역사와 펫산업 미래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민 수의사가 강연했다. 건국대 수의학 박사인 최영민 수의사는 전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SBS동물농장 등 각종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수의사 중 한 분이다. 최영민 수의사는 개나 고양이가 어떻게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고 이어서 인간과 반려동물이 서로 공감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어떤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흥미롭게 들려주었다.

최영민 수의사는 이어서 인간과 반려동물이 앞으로도 어떻게 행복한 상호공존을 지속할 수 있을지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존중하는 수준이 곧 한 국가나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의 우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반려동




▲ '반려동물의 역사와 펫산업 미래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중인 최영민 수의사



▲ 최영민 수의사의 강연을 경청 중인 참석자들

물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참석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다양한 질문과 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수준이 곧 문화수준의 우열을 드러낸다는 최영민 수의사의 논지에 공감을 표하며, 우리 사회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 시점에 인간과 반려동물이 서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정치, 교육 등 각 사회 분야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기념촬영한 후 2023년 정기총회 및 창립 12주년 기념포럼이 마무리되었다. 



▲ ICKC '정기총회 및 창립 12주년 기념 포럼' 참석자 기념촬영

“2023년 자랑스러운 육사인상”

이석복 장군 수상 소감

ICKC 회원인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4월 28일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개교 77주년 기념행사에서 “2023년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은 국가안보·사회발전에 기여했거나 타의 귀감이 되는 선행·희생정신을 발휘한 동문을 선발·포상하는 제도로, 올해 수상자로 이석복 이사장과 이강호(육사 29기) PMG 회장이 공동 선정되었습니다. 이석복 이사장은 1965년 육사 21기로 임관해 베트남전쟁에 참전했고, 1971년 인헌무공훈장과 월남동성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5보병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등을 역임했고, 전역 후에는 한미 우호 증진에 진력해 1996년 미국 공로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교직원·사관생도·장병, 수상자와 가족지인, 총동창회 임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고, 박익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도 참석해 수상을 축하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해 이석복 이사장의 수상소감을 게재하며,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다. _ICKC 사무국

오늘 저는 화랑대문을 두드린 지 62년이 지나 백발이 되어 다시 이곳 화랑대를 찾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또 지켜나갈 자랑스러운 청백 대열 앞에서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 “2023년 자랑스러운 육사인상 시상식” 기념 촬영

저의 생도 생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꿈은 컸지만, 별로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암송하는 사관생도 신조인 “하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서 산다. 셋,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만큼은 뼈 속까지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마디의 신조는



▲ 수상을 위해 단상에 오르는 이석복 차세대전략연구원 이사장

이 세 마디는 국가(Country), 명예(Honour), 의무(Duty)의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항시 머리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신조를 심어주신 조국과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임관 이후 전쟁터를 포함하여 전역 시까지 그리고 전역한 지금까지도 모든 행동이나 판단 시에 사관생도의 신조가 나도 모르게 떠오르고, 신조에 어긋나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왔던 일생이었습니다.



▲ 이석복 이사장의 수상 소감

일생을 통하여 현역 시절 월남전에 참전했던 일, 미국방대학원에서 최초의 외국학생으로서 썼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책으로 출판되었던 일, 우리 국군에 현재 합동군제 도입 시 핵심 역할을 했던 일, 한미연합군무를 하면서 후배들을 미군 못지않은 유능한 장교로 훈련시켰던 일, 지휘관을 하면서 부대는 이겨놓고 싸울 수 있도록 했고, 부하들을 참다운 민주시민으로 육성시켰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전역 후에도 평생 익힌 외국어와 국가안보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한미동맹 및 유엔사와 관련된 일, 우리나라 내부 안보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일, 대한민국에서 문화안보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던 일, 국가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계도 하던 일, 국민이 세운 쟁크탱크에 봉사하는 일, 79살에 수필가로 등단하여 불특정 다수와 소통의 길을 넓힐 수 있던 일 등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우리 모교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국가의 간성을 키우는 학교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면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현역 때에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그러나 전역 후에는 우리나라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

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저는 “노병은 죽지 않고 공화주의 파수꾼이 될 뿐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육사인이면 누구나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저에게 과분한 “자랑스러운 육사인 상”이란 큰 영광을 주신 육사총동창회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이 영광을 전방과 월남에서 전사하신 9분의 동기생들에게 돌리겠습니다.

평생 철차탁마하며 정을 키워온 평생 전우인 육사동기생들, 후배님들, 이곳 태릉까지 먼 길을 저를 격려해주시기 위해 오신 대한민국의 애국동지와 전우 및 오랜 친구들, 저의 새로운 고향 안양시의 대표적 애국지도자님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문화교류운동본부(ICKC)의 위호인 이사장과 박의근 재정위원장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이 멋지고 감격스러운 행사를 개최해 주신 모교 권영호 교장님을 비롯한 학교 간부와 후배사관생도들에게 정중한 경례를 올립니다.

끝으로 항상 나라를 위한답시고 밖으로만 나다니던 저에게 꾸밈 없이 용기와 사랑을 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특별히 깊은 사랑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감사합니다. 멸공!



▲ 시상식에서 이석복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부인(가운데), 박의근 ICCK 재정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함께 기념 촬영

[부록: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법 제정 후 3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2023년 4월 27일 시행 내용 중심



동물학대행위 범위 확대

소유자들이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맹견에 더하여 **일반견**의 경우도 소유자들이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신설

● 동물 유기 방지 제도 마련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신청 받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함

·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를 장기 입원, 군 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



실험동물 보호수준 향상

● 전임수의사 배치

일정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의무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 '사실 동물보호소' 제도권 편입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 및 지원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함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개편

● 허가대상 확대, 처벌수준 강화

· 동물수입·판매·장모업을 허가제로 전환
·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처벌 수준 강화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법 제정 후 3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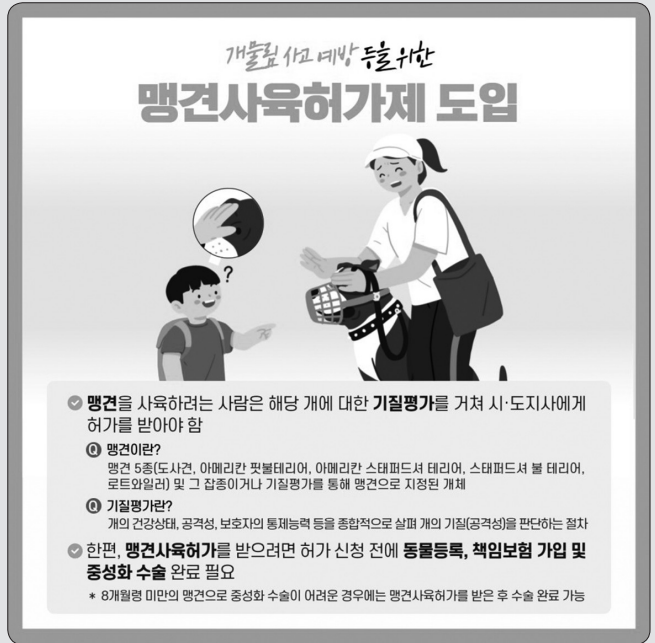
2024년 4월 27일 시행 내용 중심

2편



농림축산식품부

개를 키우고 메망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 ✓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① 맹견이란?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이거나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된 개체
 - ② 기질평가란?
개의 건강상태, 공격성, 보호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의 기질(공격성)을 판단하는 절차
- ✓ 한편, 맹견사육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 전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완료 필요
 - * 8개월령 미만의 맹견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후 수술 완료 가능

반려동물 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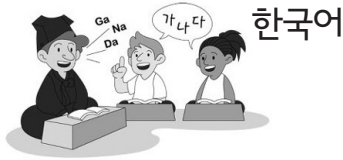


- ✓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및 소유자 교육 등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
- ✓ 하위법령에서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세부내용이 마련될 예정

취종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고도화



- ✓ 외부 전문기관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됨
- ✓ **시행일 당시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간 보장
 -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4년
 -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3년
 -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2년



태국 대입시험서 제2외국어 한국어 선택 20% ... 2년 연속 2위

올해 태국 대학 입학시험에서 한국어 응시생이 작년 이어 일본어 응시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3일 태국한국교육원에 따르면 2023년 태국 대입 시험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한 2만 309명 중 19.8%인 4천9명이 한국어 응시자였다. 중국어 응시자가 7천929명(39.0%)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가 두 번째였다. 일본어(3천833명·18.9%), 프랑스어(2천357명·11.6%)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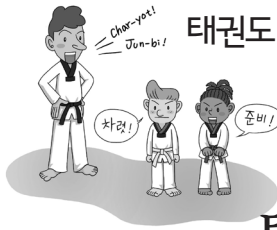
한국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239명(6.33%) 증가했다. 응시자 수에서 한국어는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어를 넘어섰으며, 올해에는 격차를 더 벌렸다. 한국어 응시 비율은 대입 시험 과목으로 채택된 2018년 9.6%에서 지난해 17.6%까지 상승했고, 올해는 약 20%에 달했다. 교육원은 학생 선발 전형의 변화 등으로 제2외국어 응시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한류 열풍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 응시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세계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태국 학교와 학생 수는 각각 180개교, 4만6천119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기사 출처]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2023/05/23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3133800076?section=search>



▲ 태국서 발간된 한국어 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화문서 1만2천263명 태권도 단체 시연 성공...기네스 세계 기록

태권도 수련인 1만2천여 명이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단체 시연에 성공해 새로운 월드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3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2023 ‘국기’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참가자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태극 1장’을 단체 시연하는 순서였다.

국기원에 따르면 이날 참가인원은 2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1만2천533명이 월드 기네스 단체 최다 시연에 도전해 이 중 1만2천263명이 성공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종전 기록은 2018년 4월 21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태권도 평화의 함성’ 행사에서 8천212명이 태극 1장 단체 시연에 성공한 것이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지 5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단체 시연 참가자들은 어린이에서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초월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00여명도 참석했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3/03/25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5034800007?section=search>



▲ 상공에서 바라본 태권도 수련생의 기네스 도전 [연합뉴스 사진]

■ 2023년 첫 문화탐방, “울곡로 궁궐담장길”

지난 4월 20일(목), 2023년 첫 문화탐방으로 서울도보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울곡로 궁궐담장길’을 탐방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스무 분이 넘는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하여 반갑게 인사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문화탐방이 시작되었다. 동행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90년 만에 개방된 울곡로를 따라 창덕궁과 창경궁, 그리고 종묘를 탐방하고, 순라길과 종로 일대까지 돌아보면서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옛 추억도 떠올리며 참가자들은 어느 문화탐방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탐방했다. 화창한 날씨에 산책을 겸한 탐방에 이어 저녁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고, 고 송해 선생님을 기리며 종로에 새로 생긴 ‘송해길’까지 둘러본 뒤 해산하였다.



▲ 종로 송해길에서 문화탐방 참석자들 함께 촬영

■ 5월 문화탐방 실시,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서 보물찾기”

지난 5월 18일(목), 2023년 두 번째 문화탐방으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였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곳은 날씨임에도 많은 회원 분들이 이번 탐방에 참가하였다. 서울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추천 코스인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서 보물찾기” 코스는 한국의 전통조경을 테마로 한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정원의 다양한 석조문화재를 감상하고 그에 얽힌 역사, 문화, 전설을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배우고 감상하는 흥미로운 코스로, 박물관을 여러 번 방문한 참석자들도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감탄하며 즐겁게 탐방했다. 이름 그대로 숨겨진 보물을 찾은 듯한 뜻 깊은 탐방에 이어 맛있게 저녁식사를 하고 해산하였다.



▲ 용산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탐방 참석자들 함께 촬영

■ ICKC 사절단,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 및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석 (아제르바이잔 바쿠, 터키 이스탄불)

박익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ICKC 사절단이 ICKC를 대표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 및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다녀왔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조정원 총재께서 ICKC의 총재를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겸하기 때문에 세계태권도연맹의 창설 5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국위를 선양하려는 취지에서 박의근 단장을 비롯해 ICKC 회원 10명이 ICKC 사절단 자격으로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방문했다.

참가한 회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석재(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김시범(前 흥천군 청 경제국장), 박인숙(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前 국회의원), 박의근(ICKC 재정위원장), 이향구(진일세 무법인 대표)·김은자 부부, 최 광(前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순영(전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행로(동승갤러리 대표) 부부, 정현관(국립산림과학원 전문위원).

ICKC 사절단은 아제르바이잔 도착 다음날인 5월 27일, 지난 50년 동안 태권도 세계화 및 발전에 기여한 국가협회와 선수 등을 격려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WT)이 바쿠의 랜드마크인 헤이 다르 알리에프(Heydar Aliiev) 센터에서 개최한 갈라어워즈 ‘골든 주빌리(Golden Jubilee)’에 참석했다.



▲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조정원 총재(가운데) 및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맨 오른쪽)과 함께 한 ICKC 사절단



▲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만찬에 참석한 ICKC 사절단 10인. 왼쪽 앞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석재, 김시범, 정현관, 박인숙, 최 광, 박의근, 정순영, 이행로, 김은자, 이향구 님(직책 생략).



▲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환담하고 있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左)와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右)



▲ 아제르바이잔 바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ICKC 사절단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갈라 어워즈에는 WT 조정원 총재를 비롯한 5개 대륙 연맹 회장단, 집행위원, 212개 회원국 대표단, 국제심판, 우수선수 등 약 500백여 명의 게스트가 참석했고 ICKC 사절단도 함께 WT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ICKC 사절단은 5월 29일에는 바쿠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즐겁게 개막식을 관람했다. 전 세계 144개국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남자부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박태준이 대회MVP로 선정되었다. 대회 개막식 참석을 마지막으로 바쿠에서 공식일정을 마친 ICKC 사절단은 이어서 터키 이스탄불 문화유산 탐방을 한 뒤 뜻깊었던 여정을 마치고 무탈히 건강하게 귀국했다.

2023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3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륜희,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시범,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창욱, 김형중, 김홍석, 노승락,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박인숙,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송수식, 오일호, 유영찬, 유자효,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행로,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이호진, 장정용, 전영섭, 정경수, 정상설, 정순영, 정인설, 정진화, 정현관, 조춘연, 추호석, 최 광, 표재순, 홍계화, 황경애, 동승갤러리,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아트코리아, 양양운수(주), 포스코DX, (주)P&H

가나다순,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20일까지

총액 : 77,180,56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조직 구성	고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최불암 예술인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이호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윤문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이호진 前 주한호주대사관 사무총장	
	정순영 前 국회정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주요 활동 내역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2015년 파독(派獨) 광부·간호사 헌신 기념을 위한 독일 뉘스라켄 음악회 개최
2017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타슈켄트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2018년 세계태권도연맹과 저개발 국가 태권도·한국어 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년 캄보디아, 네팔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2년 대한태권도협회(KTA)와 태권도 수련생들의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전국 태권도장 대상 '동물사랑·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개최 및 시상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및 시상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CKC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동물사랑·생명존중

JETI 재능교육

지켜주자, 우리 스스로!



동물을 사랑하면 우리모두 행복해요!

▶ Taekwondo Animal (태권도 애니멀 TV)